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한국과 독일의 청년실업률 비교와 시사점

목 차

■ 한국과 독일의 청년실업률 비교와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청년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3. 결론 및 시사점	10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경 제 연 구 실 : 신 유 란 연 구 원 (2072-6240, yooran0111@hri.co.kr)

Executive Summary

□ 한국과 독일의 청년실업률 비교와 시사점

■ 개요

(청년실업률 현황) 국내 청년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6년 9.8%로 증가하였고, 전체실업률은 3.2%에서 3.7%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독일의 경우 청년실업률은 2012년 7.3%에서 2016년 6.2%로 감소하였고, 전체실업률도 5.4%에서 4.1%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기준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배율은 한국이 2.65배, 독일이 1.50배**이다. (청년실업률 증가 시 문제점) 청년실업의 증가는 청년층이 소득 감소 및 인적자본 축적 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적인 비용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청년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한국과 인구 및 산업 구조가 유사한 독일과 비교해 보고 청년실업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 청년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방법) 청년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형화된 분석 기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보고서에서는 양적 요인과 질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양적 요인으로 공급측면에서는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내 공급 변화를, 수요측면에서는 경기여건과 노동수요를 살펴보았다. 질적 요인으로는 고학력 공급과잉, 전공 불일치, 일자리 경험 부족을 살펴보았다.

① 양적 요인

(인구구조) 한국의 청년층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독일의 청년층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청년층 인구의 감소세가 둔화되며 청년실업률 하락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독일의 청년층 인구는 최근 증가 추세로 향후 청년실업률 상승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노동시장 공급) 한국의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한 반면 독일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하였다. 한국은 최근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2013년 43.3%에서 2016년 47.3%로 높아졌으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증가로 청년실업률 상승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독일의 경우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61.0%에서 60.7%로 감소하여 실업률 하락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경기여건 및 노동수요) 한국의 경우 독일에 비해 일자리 창출력 및 청년층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GDP갭률이 마이너스이며 그 폭이 확대되는 추세로 일자리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반면 독일의 GDP갭률은 최근 플러스로 반전 후 확대되어 일자리 창출력이 개선된 상황이다. 노동수요 지표로 볼 수도 있는 고용률의 경우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은 40%대 초반으로 낮은 수준인 반면 독일의 고용률은 5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② 질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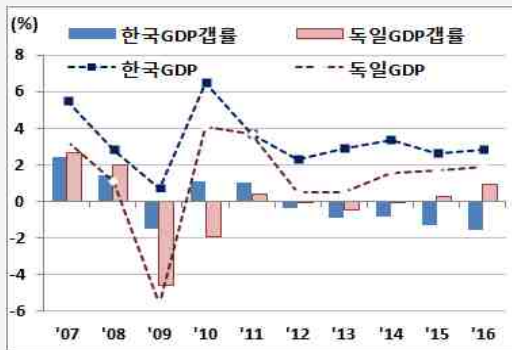
(고학력 공급과잉) 한국은 독일에 비해 젊은층(young people; 청년층(youth)과는 다른 OECD 교육지표의 분류 기준)의 고학력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다. 한국의 경

우 젊은층의 고등교육이수율이 2005년 51%에서 2015년 69%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독일 젊은층의 고등교육이수율은 2005년 22%에서 2015년 30%로 소폭 증가하였다.

(전공불일치) 한국은 독일에 비해 청년층의 전공불일치 비율이 크게 높은 상황이다. 한국의 일반교육을 받은 청년층의 전공불일치 비율이 50.5%로 독일 35.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직업교육을 받은 청년층의 경우에도 전공불일치 비율이 한국 45.8%로 독일 9.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국내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자리경험 부족) 한국은 독일에 비해 청년층의 일자리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다. 학업중인 청년 중 학업과 일을 병행한 청년의 비율은 한국이 18.6%로 독일 47.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의 경우, 직업교육 중 견습제도를 통한 일자리 경험 비율은 한국이 4.6%에 불과한 반면 독일은 72.8%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견습제도 외의 일을 통해 일자리를 경험한 학생의 비율은 한국이 6.6%, 독일이 20.4%이다. 한국 청년층은 일자리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최근 우리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가 증가하는 추세에 반하는 특성이다.

< GDP증가율 및 GDP갭률 추이 >



자료 : OECD.

< 25-29세 청년인구 추계 >



자료 : 통계청
주 : 2017년 이후는 통계청 전망치임.

■ 결론 및 시사점

(결론) 한국의 청년실업률 상승은 최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급증하였으나 경제의 전반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력이 부족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또한 청년층 노동시장 내 수요와 공급간 질적 불일치도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사점) 청년실업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 내 청년층 노동인력의 양적 수급불균형 해소 방안이,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력 제고 방안 및 질적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성장 잠재력 확충을 바탕으로 경제의 전반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에코붐 세대의 본격적인 노동시장 진입에 대응한 세제 지원, 직업교육 등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고학력 청년층 흡수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과도한 대학 진학 선호 풍토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산업에서 요구하는 전공 수요를 교육 부문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다섯째, 실질적인 직업 훈련과 현장 경험 확대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에 부응해야 한다.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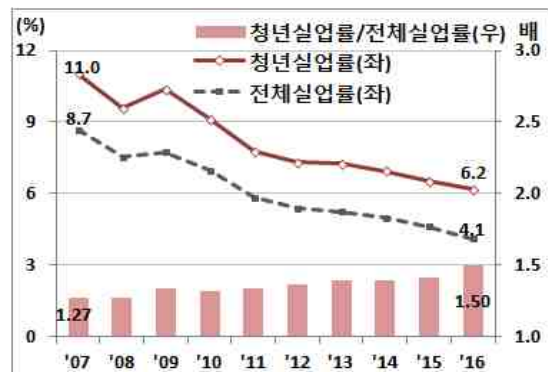
- (청년실업률 현황)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개선¹⁾
 - 한국은 청년실업률은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전체실업률이 안정적인 추세로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배율이 확대
 -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2년 7.5%에서 2016년 9.8%로 최근 청년실업률이 빠르게 증가
 - 반면 전체실업률은 3%대에서 소폭 등락을 유지(2012년 3.2%→2016년 3.7%) 하며 안정적인 추세로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이 2012년 2.34배에서 2016년 2.65배로 확대
 -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배율은 소폭 확대
 -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2012년 7.3%에서 2016년 6.2%로 꾸준히 감소
 - 독일의 전체실업률 또한 2012년 5.4%에서 2016년 4.1%까지 감소
 -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배율이 동기간 1.36배에서 1.50배로 소폭 확대

< 한국 청년실업률 및 전체실업률 >



자료 : 통계청.

< 독일 청년실업률 및 전체실업률 >



자료 : Eurostat.

1)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높은 대학진학률 및 남성의 군복무를 고려하여 청년층 연령을 15-29세를 기준으로 하며, 독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15-24세를 청년층으로 규정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과의 비교를 위하여 독일의 청년층 연령을 15-29세로 정의.

- (청년실업률 증가 시 문제점) 청년실업률 증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 부담을 높임
 - 첫째, 청년실업률 증가는 총생산을 감소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
 - 청년층 유희인력의 증가는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져 총생산을 감소시키는 요인
 - 실업으로 인해 청년실업자는 직업 경험 및 기술 축적의 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인적자본 형성이 저해되며, 이는 노동의 생산효율성 감소 및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짐
 - 노동력 감소로 인한 총생산 감소뿐만 아니라 인적자본의 손실로 인한 생산효율성 감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둘째, 청년실업의 증가는 청년층의 세수감소, 재정부담 악화 등을 유발하여 사회전체의 비용 부담을 가중
 - 청년실업률 증가는 청년실업자의 단기적인 소득손실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인적자본 형성 저해 및 낙인효과 등으로 장기적으로도 소득을 감소
 - 청년층의 장·단기 소득손실은 세수감소, 실업급여 및 사회보장비용 증가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
 - 셋째, 청년실업의 증가는 청년층의 심리적 불안, 세대 간 갈등 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안정을 저해
 - 청년실업률 증가는 고용불안으로 인한 청년세대의 경제적 불안 및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확대시켜 청년층의 심리적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
 - 청년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게 되면서 기존 세대와의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할 가능성
- 본 보고서에서는 고령화, 제조업 기반 산업구조 등 한국과 인구 및 산업구조가 유사한 독일과 청년실업률에 미치는 요인을 비교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청년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분석 방법

- 청년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분석 기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분석
- 청년실업률은 노동시장 수요·공급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이는 청년층 노동인력에 대한 양적 수요·공급과 노동시장 내 구직자와 구인자 간 질적 수요·공급에 모두 영향을 받음
 - (양적 요인) 공급 요인으로는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의 변동과 노동시장 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청년층 인구의 변동을 분석, 수요 요인으로는 경제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노동수요 변화를 분석
 - (질적 요인) 질적 요인은 학력, 전공, 경험 등 노동시장 내 수요와 공급 간 질적 불일치를 분석

< 청년층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양적 요인	공급	인구구조	청년층 인구 증가는 노동시장에 참여 가능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로 청년실업률 상승 압력
		노동시장 진입	경제활동참가율은 노동시장 진입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시 노동시장 내 공급 증가로 청년실업률 상승 압력
	수요	경기여건	GDP갭은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 간 차이로,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총수요 감소로 신규 일자리 창출력이 약화되어 청년실업률 상승 압력
		노동수요	고용률은 노동력 수요지표로 청년층 노동수요 감소 시 청년실업률 증가 압력
질적 요인	고학력 공급과잉		고학력 청년층 공급과잉은 고학력자 실업률 상승 압력 발생, 학력 mismatch 심화는 탐색기간 장기화 및 일자리 불만족 등으로 인한 마찰적 실업 등으로 청년실업률 상승 압력
	전공 불일치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국내 교육시스템이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 청년실업률 상승 압력
	일자리 경험 부족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 경험은 고용가능성을 높여 청년층의 일자리 경험 부재 시 청년실업률 상승 압력

2) 양적 요인

- (인구구조) 한국의 청년층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독일의 청년층 인구는 감소하다 최근 증가 추세로 반전
- 한국의 청년층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최근 감소 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청년실업률 하락 압력이 완화
 - 한국의 청년층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07년 1,058만 명에서 2016년 997만 명으로 감소
 - 2012년부터 청년층 인구 감소 속도가 줄어들고 있어 청년층 인구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
 - 최근 청년층 인구 감소세 둔화로 청년실업률 하락 압력이 완화
- 독일의 청년층 인구는 감소하던 추세였으나, 최근 청년층 인구증가율이 빠르게 높아짐에 따라 청년층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반전
 - 독일의 청년층 인구는 2007년 1,453만 명에서 2012년 1,371만 명까지 감소하다 최근 증가 추세로 반전하여 2016년 1,417만 명으로 증가
 - 최근 독일 청년층의 인구증가율이 빠르게 높아짐에 따라 청년실업률 상승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 한국 청년층 인구 추이 >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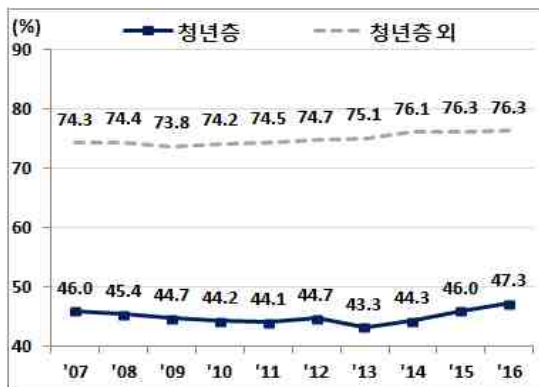
< 독일 청년층 인구 추이 >



자료 :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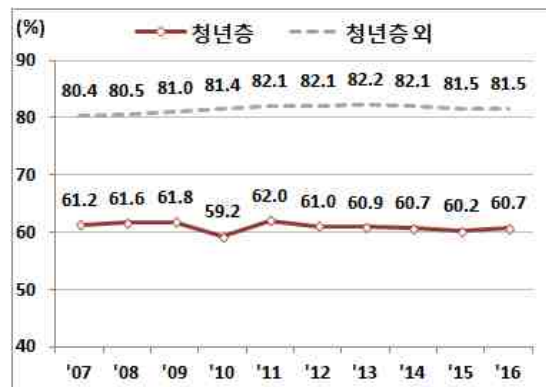
- (노동시장 진입) 한국의 경우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여 노동시장 내 청년층 노동공급이 증가한 반면 독일의 경우 소폭 감소
- 최근 한국의 20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 내 청년층 진입 증가로 실업률 상승 압력 발생
 - 2013년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43.3%에서 2016년 47.3로 4.0%p 증가하였고, 동기간 청년층 외 연령(30-64세)은 75.1%에서 76.3%로 1.2%p 증가한 것에 비해 최근 노동시장 내 청년층 진입이 높은 상황
 - 이는 에코붐 세대2)가 대학 졸업 후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증가하여 청년실업률 상승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
- 독일의 경우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한 반면 청년층 외 연령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
 - 독일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 61.0%에서 2016년 60.7%p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청년층 외 연령(30-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2.1%에서 81.5%로 감소
 -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함에 따라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에 따른 청년실업률 하락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

< 한국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



자료 : 통계청.

< 독일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



자료 : Eurostat.

2)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의 자녀 세대로 1991~1996년생을 의미.

- (경기여건 및 노동수요) 한국의 GDP갭률은 마이너스인 반면 독일의 GDP갭률은 플러스로 한국의 총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며, 한국 청년층의 고용률이 독일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청년층 노동 수요가 부족
- 한국의 경우 GDP갭률이 마이너스로 총수요가 부족한 상황인 반면 독일의 경우 플러스로 총수요가 충분한 상황
 - 실업률은 경제성장률과 부(-)의 관계가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에 비해 경기여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
 - 한국의 GDP갭률은 최근 마이너스폭이 확대된 반면 독일의 경우 GDP갭률이 플러스로 반전된 후 그 폭이 확대
 - 한국의 총수요 부족 심화로 일자리 창출력이 악화되어 청년실업률 상승 압력이 존재할 가능성
-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이 최근 상승하였으나, 2016년 기준 42.3%로 독일의 청년층 고용률인 56.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청년층 고용률은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 지표로 볼 수도 있으며,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은 2007년 42.6%에서 2016년 42.3%로 소폭 하락한 반면 독일의 경우 동기간 54.5%에서 56.9%로 상승
 -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이 최근 상승하였으나 독일의 청년층 고용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GDP증가율 및 GDP갭률 추이 >



자료 : OECD.

< 청년층 고용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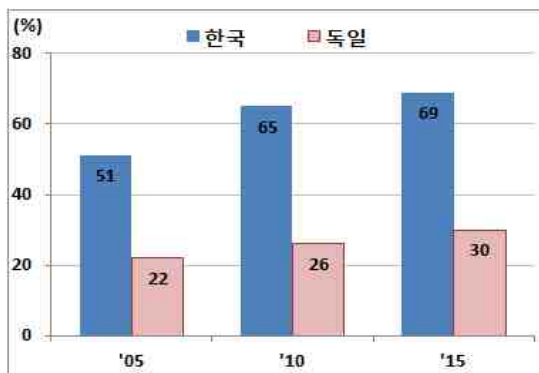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Eurostat.

3) 질적 요인

- (고학력 공급과잉) 한국의 경우 독일에 비해 젊은층(young people; 청년층(youth)과는 다른 OECD 교육지표의 분류 기준)의 고등교육이수율이 크게 증가하여 고학력 청년층의 공급과잉 가능성)
 - 한국의 젊은층 고등교육이수율은 독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크게 증가한 반면 독일의 젊은층 고등교육이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소폭 증가
 - 한국의 젊은층 고등교육이수율은 2005년 51%에서 18%p 증가해 2015년 69%로 크게 증가, 독일 젊은층의 경우 동기간 22%에서 30%로 8%p 증가
 - 한국의 젊은층 고등교육 이수율이 독일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청년층 노동시장 내 고학력자 공급과잉 가능성
 - 한국의 대졸이상 청년층 실업률은 전 연령 대졸이상 실업률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독일의 대졸이상 청년층 실업률은 감소
 - 한국의 대졸이상 청년실업률은 2007년 6.1%에서 2016년 9.6%로 3.5%p 증가하여 대졸이상 전체실업률이 동기간 0.5%p 증가한 데 비해 큰 폭으로 증가
 - 독일의 대졸이상 청년실업률은 2007년 5.1%에서 2016년 3.4%로 감소하였으며 동기간 대졸이상 전체실업률은 3.8%에서 2.2%로 감소하여 동반 감소

< 젊은층(young people) 고등교육이수율 변화 >



자료 : OECD.

< 대졸이상 실업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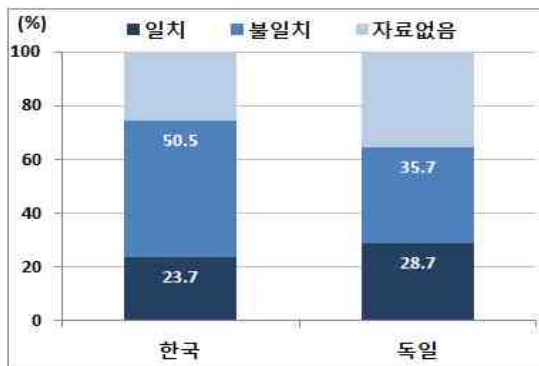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Eurostat.

3) 고등교육이수율은 대학 이상의 교육(Tertiary education)을 이수한 비율로 젊은층(young people)은 대학 졸업자의 연령을 고려한 25-34세를 의미하며, 젊은층의 고등교육이수율은 청년층의 고등교육진학정도를 반영하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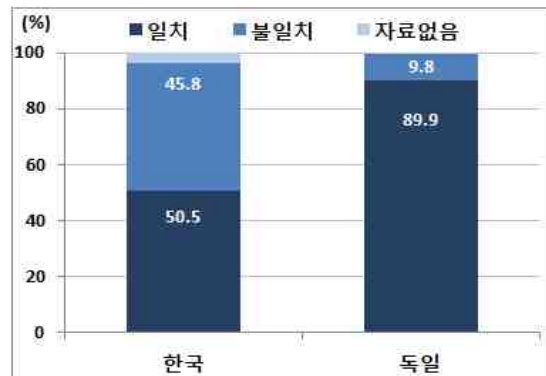
- (전공불일치) 한국 청년층의 전공불일치 비율이 독일 청년층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으로,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국내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 노동시장의 전공 수요를 교육시스템이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청년층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의 직업탐색 기간이 길어지며, 취업 후에도 불일치로 인한 이직 등으로 인한 마찰적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
- 한국 청년층의 경우 독일에 비해 직장에서의 전공불일치 비율이 높은 수준
 - 한국의 중등교육 이상의 일반교육을 받은 청년층의 50.5%는 실제 일자리와 전공이 불일치하는 상황이며 일치하는 경우는 23.7%, 독일 청년층의 경우 35.7%가 전공이 불일치하며 28.7%가 일치
 - 한국은 독일에 비해 일반교육을 받은 청년층의 전공불일치가 높은 수준
- 한국은 직업교육을 받은 청년층에서도 전공불일치 비율이 높은 반면 독일의 경우 직업교육 시 전공일치도가 매우 높은 수준
 - 직업교육을 받은 경우 한국 청년층의 전공일치 비율은 50.5%로 높아지나 전공불일치 비율도 45.8%로 높은 수준이며, 독일 청년층의 전공일치 비율은 89.9%로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불일치 비율은 9.8%에 불과
 - 한국은 직업교육을 받은 청년층에서도 독일에 비해 매우 높은 전공불일치를 보이며, 독일의 전공일치정도는 한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

< 일반교육을 받은 청년층의 전공불일치 정도 >



자료 : OECD (2015) 자료를 재구성.4)
 주 :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청년층 대상.

< 직업교육을 받은 청년층의 전공불일치 정도 >



자료 : OECD (2015) 자료를 재구성.
 주 :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청년층 대상.

4) "OECD Skills Outlook 2015 - Youth, Skills and Employability", OECD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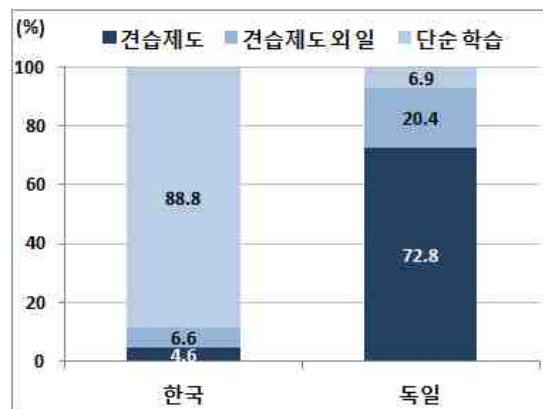
- (일자리 경험 부족) 한국 청년층의 경우 독일 청년층에 비해 일자리 경험이 크게 부족한 상황으로, 최근 우리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가 증가하는 추세에 반하는 특성이다.
- 견습제도 등의 직장경험은 현장을 통한 학습(work-base learning)으로 기업에서 원하는 경험을 충족시켜 청년층 고용가능성을 높임
- 한국의 청년층 중 학업중인 청년의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나 학업 중 일을 병행한 청년의 비율은 낮은 수준
 - 한국의 청년층 중 학업중인 청년은 53.8%이며, 이들 중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비율은 18.6%에 불과
 - 독일의 청년층 중 학업중인 청년은 54.6%이며, 이들 중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비율은 47.3%로 절반 가까이가 학업 중 일을 병행
- 한국의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 중 일자리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낮은 수준이며, 독일의 경우 견습제도를 통한 일자리 경험 비율이 높은 수준
 - 한국의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 중 견습제도(apprenticeship)를 통한 직업경험이 있는 비율은 4.6%에 불과한 반면 독일의 경우 72.8%로 높은 수준
 - 한국의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 중 견습제도 외 일자리를 경험하는 비율은 6.6%로, 독일 20.4%에 비해 낮은 수준

<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층 비율 >



자료 : OECD (2015) 자료를 재구성.
 주 : 일과 학업 병행 비율은 학업중인 청년층 중 일을 병행한 비율.

< 직업교육 중 일자리 경험 비율 >



자료 : OECD (2015) 자료를 재구성.
 주 :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청년층 대상.

3. 결론 및 시사점

- (결론) 한국의 청년실업률 상승은 최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급증하였으나 경제 내 전반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력이 부족한 데 주된 원인이 있음. 또한 청년층 노동시장 내 수요와 공급 간 질적 불일치도 청년실업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음

첫째, 노동시장 내 청년층 진입이 급증하였으나, 성장 둔화로 인한 신규일자리 창출력이 부족하여 청년실업률 상승 압력 발생

- 한국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늘어난 상황에서 실제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면서 청년층 고용흡수를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력은 저하

둘째, 청년층 노동시장 내 수요와 공급 간 질적 불일치는 실업률을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

- 한국 청년층의 전공과 직장에서의 전공 간 불일치가 높은 수준으로, 교육부문이 산업에서 요구하는 전공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판단되며, 노동시장 내 필요 전공에 대한 정보의 원활한 교류가 부족할 가능성
- 한국 청년층의 경우 일자리 경험 및 직업현장·훈련 경험 비율이 낮아 직업훈련을 위한 제도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

- (시사점) 청년실업률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노동시장 내 청년층 노동인력의 양적 수급불균형 해소 방안이,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력 제고 방안 및 질적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첫째, 성장 잠재력 확충을 바탕으로 경제 내 전반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력을 높여야 한다.

- 고용 창출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의 확대와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 필요

- 청년층 창업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벤처 활성화 등을 바탕으로 청년층 신규 일자리 창출력 강화
- 고용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 및 일자리 창출력 회복

둘째, 에코붐 세대의 본격적인 노동시장 진입에 대응한 세제 지원, 직업교육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민간 부문 청년층 고용 및 산학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세제 지원과 단기적 임금 지원 등 기업의 청년고용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민간에서의 청년층 고용 흡수를 높일 필요
- 공공 보육, 소방, 경찰 등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분야에 청년층 채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여 청년층의 단기적 노동공급에 탄력적으로 대응

셋째, 고학력 청년층 흡수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및 과도한 대학 진학 선호 풍토 개선이 필요하다.

-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여건을 개선 등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고학력 청년층이 요구하는 근로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
- 한국 사회의 채용 시 학력 중시 경향을 완화, 대졸자와 고졸이하 근로자 간 학력차이로 인한 임금·승진 기회 등에서의 격차를 해소 등을 통해 과도한 대학 진학 선호 풍토를 개선

넷째, 청년층의 직장 내 전공불일치 정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에서 요구하는 전공 수요를 교육 부문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 산업구조 변화 및 기술고도화로 인해 발생하는 전공 인력의 수요 변동을 반영하여 전공별 교육방식 및 전공 인력 배출 규모의 조정이 필요
- 학교와 개인, 기업 간 정보교류 및 매칭을 위한 청년 특화 고용정보서비스 구축을 바탕으로 구직자와 구인자 간 직접적인 정보 교류 활성화 및 교육기관을 통한 일자리 매칭 시스템 강화

다섯째, 실질적인 직업훈련과 현장 경험 확대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

- 직업중심 교육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일 기반 학습(work-based learning) 등 직업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인재 양성 시스템의 확충 필요
 -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육성 및 기업 현장 경험 기회 확대를 바탕으로 고졸 청년층의 취업 경쟁력 강화
- 교육기관과 현장 간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일반교육을 받는 청년층의 일자리 경험 기회를 확대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제고 **HRI**

신 유 란 연구원 (2072-6240, yooran0111@hri.co.kr)